

미 상원, 280조원 '중국견제법' 가결

68 대 32 초당적 찬성

중국과 경쟁 산업 기술 개발

반도체·AI 등 공격적 투자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다.

미 상원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달러(280조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했다. 법 통과에 따라 향후 5년간 1900억 달러(210조원)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특히 540억달러(60조원)는 반도체에 특정해 집행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달러(2조 2000억원)가 할애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돼 대립 구도를

형성한 상원 의석분포를 고려하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군사-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 의식을 증명한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법안 찬성자들은 이번 법 통과로 과학 분야에 대해 가장 큰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지난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극심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인 대중국 견제 전략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측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정부가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애초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화당 상원 일부가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기하며 이날까지 표결을 미뤘다. 공화당 일각에선 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안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인 무소속 버니 샌더스의 원 등 일부는 항복 가운데 포함된 미 항공우주국(NASA) 지원이 결과적으로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처리를 마치고 대기 중인 별도의 관련법과 병합돼 별도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정식 발효한다. /연합뉴스



지방 순회에 나선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남동부 드롬주의 작은 마을 탕레흐 미타주를 방문하던 중 20대 남성에게 뺨을 맞아 경호원이 대통령의 몸을 감싸 보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순회 중 뺨 맞은 마크롱 "지근거리 소통 계속"

28세 남성 2명 현장에서 체포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지방 순회를 하던 중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에게 뺨을 맞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남동부 드롬주의 작은 마을 탕레흐미타주에서 이러한 봉변을 당했다고 프랑스앵포 라디오.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마크롱 대통령은 경호 차원에서 설치해놓은 울타리 건너편에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 다가갔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맨 앞줄에 있는 남성의 왼팔을 잡았다.

그 순간 이 남성은 프랑스 왕정시대로 회귀를 꿈꾸는 우익세력의 구호 "생드니 만세"와 "마크롱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가격했다. 워낙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라 경호원이 제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마크롱 대통령을 때린 남성(28)과 현장에 함께있던 남성(28)을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마크롱 대통령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향

상 추구했다"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고 AFP, AP 통신이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계속 응대하겠지만 어리석음과 폭력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일간 르도피네와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때린 남성 옆에 있던 사람들과 계속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며 "나는 여태껏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하원에 출석한 장 카스텍스 총리는 "정치 지도자, 특히 프랑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을 겨냥한 것은 민주주의를 겨냥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잡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가 원수에게 나라 전체가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마크롱 대통령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해야 하는 정치인들조차, 우를 가리지 않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지지를 보였다. /연합뉴스



경찰폭력 희생자 추모 행위극 벌이는 콜롬비아 시위대 콜롬비아 동부 칼리에서 8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 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위극을 벌이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4월 말부터 빈곤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최소 59명이 숨지고, 2300여 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아시아계 캐나다인 58% "1년 새 인종차별 경험" 저소득·젊은층이 더 심한 형태 겪어

캐나다에서 아시아계 출신 주민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사이 인종차별을 경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UBC)이 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 연구소와 공동으로 아시아계 캐나다인의 인종차별 실태에 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인종차별 사건을 겪은 응답자가 58%에 이른다고 CBC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응답자의 28%는 인종차별을 '항상' 또는 '자주' 겪는다고 밝혔으며, 저소득층이나 젊은층일수록

더 심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앵거스 리드의 사치 컵 대표는 젊은층의 반응과 관련해 "이들이 일선 현장에 나가 있거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며 "재택근무나 자가용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더 많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인종차별 경험의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53%는 '상처를 받고 영향이 지속된다'고 밝혔고, 38%는 '힘들지만 잡아낼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6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중국계가 58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계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아시아계가 다수 거주하는 BC주 밴쿠버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아시아계 증오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송이 전했다.

밴쿠버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증오범죄가 전년보다도 두 배로 증가한 가운데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총 98건으로 전년도 12건보다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애플, 사생활보호 강화에 광고업계 좌불안석"

이용자정보 수집 제동 가능성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사생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광고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7일 열린 '세계개발자대회 2021'(WWDC 2021)을 열고 올가을 아이폰·아이패드·맥 등의 운영체제(OS)에 새로 도입할 주요 기능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대거 담겼다. 메일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는 이용자가 받은 이메일을 열어본 시간이나 이용자가 접속한 IP 주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간다. 대부분의 마케팅용 이메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추적 픽셀이 들어 있어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광고

업체 티누티 관계자는 "브랜드들이 자기가 보낸 이메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업계 일부 임원들은 애플이 이용자의 메일 합까지 데이터 추적 방지 조치를 확장한 데 놀랐다고 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메일 마케팅은 소매업체나 홍보회사, 출판업체,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 등에게도 중요한 수단 이 돼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이메일 광고 시장은 작년보다 10% 성장한 5억3560만달러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애플은 또 자사 웹브라우저 사파리로 웹 서핑을 할 때 이용자의 IP 주소가 방문한 웹사이트로 전송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사파리는 구글의 크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웹브라우저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19%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연합

행복이벤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저축대상외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연합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협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연합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8) **266-4150**

매곡지점 (북구 설죽로 315번길) **572-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9) **573-4150**

침단지점 (북구 침단안로 91번길2-2) **576-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9) **528-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83, 285) **263-415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연합**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